

여의도의 썬법, 볼모로 잡힌 풀뿌리 출마자들



기고

안동현

前 국민의힘 윤리위원

6월 지방선거가 불과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거리에는 봄기운이 돌기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의 시계는 여전히 한겨울의 빙점 아래 멈춰 서 있다.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할 중앙당 내부에서 거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공천 시스템을 책임져야 할 기구마저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의도의 호사자들은 이를 두고 당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라며 관전평을 쏟아낸다. 하지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 소모적인 논쟁의 진짜 피해자는 여의도의 유력 인사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의 상황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싸늘한 질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지역 골목을 누비는 현장의 출마자들이다.

그들이 마주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당내 사정도 사정이지만 우려스럽고 무책임한 것은, 광장으로 나가

장의 집회로 세를 과시하며 당을 흔드는 행태다. 진정한 혁신과 쇄신은 당의 시스템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타협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 밖에서 당을 향해 던지는 돌팔매질은 득권을 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뛰고 있는 우리 후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뿐이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소모전 속에서 민생이 완전히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실물 경제와 지역 상권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경기 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 상인들, 그리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민들의 눈에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출마자들의 짙은 좌절감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지방선거에 도전하며 지역구를 누비는 예비후보들은 당의 이름으로 주민들의 삶을 바꿀 비전을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한 민생 공약을 준비해 다가가도, 중앙당의 파열음과 장외 집회의 소음이 모든 현장과 정책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 “집안싸움이나 먼저 끝내라”는 호통 앞에서, 지역의 내일을 논해야 할 후보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당의 리더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서 오는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가. 아니면 뼈를 깎는 쇄신으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줄 때 오는가.

지금 현장의 출마자들이 바라는 것은 뻔한 여의도의 썬법이나 장외의 소음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과 중도 민심까지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이기는 선거 대응 전략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어느 확실한 방향성 없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은 그 어떤 결정보다 현장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은 여의도의 썬법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출마자들이 기댈 수 있는 베이스캠프부터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현장에서 피 흘리는 병사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채 치르는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출마자들에게 외연 확장과 자유로운 목소리라는 최소한의 무기조차 쥐여주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선거의 패배 책임은 온전히 득권에 안주한 이들과 당을 분열시킨 이들의 몫이 될 것이다. 여의도의 멈춘 시계를 깨고, 과감한 선거대응전략으로 전국 현장의 시계에 당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에게겐 고민할 시간이 없다.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

연체를 막는 금융



기자수첩

나유리 (금융부)

연체를 고민하던 시점, 금융회사에서 받은 것은 상환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이 아니라 납부를 안내하는 문자였다. 몇 차례 안내가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조정방안은 없었다. 그러나 연체가 발생하자 상황은 달라졌다. 그제서야 채무조정 안내가 시작됐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채무조정 제도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금융의 작동 방식은 여전히 연체 이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 상환 여력이 약화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고,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은 이후에야 제도적 지원이 시작되는 구조다.

최근 통계를 보면 채무조정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40·50대가 전체 채무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청년층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생활비 부담과 이자 비용이 동시에 커지면서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영향이다.

그럼에도 금융의 대응은 여전히 사후적이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는 상환을 독려하는 안내가 중심을 이루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반면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는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 분할상환 등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금융은 연체를 막기보다는 연체 이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연체 이전 단계에서 채무를 조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정상 대출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실제로 금융회사들은 연체율과 고정이자여신 비율 등을 핵심 관리 지표로 삼고 있어 사전적 개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채무조정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으로 기능하고 있고, 채무자는 연체라는 경계선을 넘은 이후에야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적자가구 비중이 높아지고 생활비성대출 의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채무 취약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채무조정이 늘어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이 이미 늦은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이 해야 할 일은 연체 이후의 정리가 아니라, 연체 이전의 방지다.

/yul15@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4일 (음 2월 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본인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는 게 좋습니다. 60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72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84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 마세요.



49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현재의 일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3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됩니다. 85년생 여행을 떠나면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50년생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세요. 62년생 검소한 생활을 하면 앞으로 평탄할 것입니다. 74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51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입니다. 63년생 꾸준한 노력의 대가로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87년생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52년생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64년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76년생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88년생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 것입니다.



53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65년생 상대와의 의견차이를 인정하세요. 77년생 동료와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89년생 중요한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54년생 눈에 띄는 행동은 자제하세요. 66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78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0년생 오래된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55년생 선물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67년생 희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7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지나친 음주를 삼가세요.



56년생 돈이 들어오나 반쯤반길입니다. 68년생 부적절한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됩니다. 80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92년생 남녀간의 문제를 조심하세요.



57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보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69년생 자신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81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58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70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세요. 82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94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59년생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71년생 아직 실 때가 아닙니다. 83년생 주변에 휘둘리기 보던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95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상회의四季

격안관화, 용기

속담 중에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태도를 뜻한다. 신기하게도 중국의 병법 36계에도 같은 전략이 있다. ‘격안관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강 건너편의 불을 구경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타인의 불행에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36계에서 말하는 강 건너 불구경은 고도의 전략이다. 이 전략의 본질은 함부로 개입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힘을 비축하라는 것이다. 이 전략을 명리학 관점으로 보면 힘겨운 일들을 어떻게 견디고 다스려야 하는지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환경이나 스트레스 혹은 타인의 시선을 명리학에서는 관성이라고 한다. 적당한 관성은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지만 그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사람을 괴롭히는 지경에 이른다. 가족 사이의 불화, 직장에서의 경쟁, 친구 사이의 갈등이 그런 일인데, 모두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팔자학에서는 타인의 운까지 대신 짚어줄 수는 없다고 본다.

각자의 사주에는 각자의 흐름이 있는데 선불리 끼어들면 오히려 불길 이 옮겨붙는 일이 생기곤 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정을 앞세워 즉각 대응하면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이 크다. 바로 불길에 달려들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격안관화 전략이다.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면 불길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지켜낼 수 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운의 흐름을 잡아타고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은 날마다 크고 작은 불길과 마주친다. 그런 때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강을 건너야 하는지 하는 것도 용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할인도서

7	3	8		5		6	1
	1		3				
6			4			9	
		4	7				2
	1				6		
2			6	3			
	2		3				6
			4		2		
8	6	9		5	1	3	

4	6		5				3
		5			2		1
			9	6			4
	2					8	7
		4				3	
7	8						5
	5			9	7		
2			6			1	
6					5		7

8	1	9	2	6	7	9	8
2	8	7	1	9	6	5	3
9	7	6	8	5	2	1	4
6	8	2	9	1	9	7	2
7	9	2	8	1	4	6	
2	9	1	6	2	7	9	8
8	6	9	1	7	2	9	9
9	2	9	8	6	6	1	7
1	9	7	9	6	2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8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